

HEADLINE NEWS

어린이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 개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Salt Lake)시 공중보건부는 어린이 과체중과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유타주 어린이 25%가 체중과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포럼은 어린이 비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걸어서 학교 가기, 학교 체육활동 강화, 워킹 버스(Walking Bus) 프로그램, 비만에 대한 학교교육 확대, 비만치료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등을 논의했다. 여기서 워킹 버스 프로그램이란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 정문 앞에 내려주지 않고 몇 블록 떨어진 곳에 내려주면 아이들이 학교까지 걸어서 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비만 전문가들은 어린이 비만을 줄이기 위해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게 하고, 교내 자판기에 건강식품과 건강음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Salt Lake Tribune, 2005. 8. 18, "Statewide Forum Looks for Answers to Lead Utah's Youth Away from Childhood Obesity")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대형 주택 선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 (워싱턴 D.C.)
- ② 오픈 스페이스 영구보존을 위한 계획기법 (뉴욕)
- ③ 벤츄라 카운티의 총진개발 우선 전략 (캘리포니아주 벤츄라)
- ④ 여성친화적인 거리 디자인 (영국)
- ⑤ 디자인 코드 사용을 통한 주택단지와 공공공간 질 향상 (영국)

도시환경

- ⑥ 도시 소음지도(Noise Map) 작성 (영국)

도시교통

- ⑦ 도심 도로체계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 (홍콩)

사회복지문화

- ⑧ 방학 중 무료로 점심 제공 (로스앤젤레스)
- ⑨ 방과 후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예술가 참여 기대 (시애틀)
- ⑩ 박물관에서 특별한 꽃 프로그램 진행 (로스앤젤레스)
- ⑪ 도심공원 활성화를 위한 예술가 모집 (시애틀)
- ⑫ 라틴계 시민을 위한 최고의 도시로 오스틴시 선정 (오스틴)

행재정

- ⑬ 시제정을 민간 호텔사업에 투자 (볼티모어)

① 대형주택 선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 (워싱턴 D.C.)

미국 메릴랜드주 워싱턴 D.C.의 교외지역인 체비 체이스(Chevy Chase)시는 앞으로 6개월간 주택건설을 허가하지 않는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선언했다. 이 조치는 이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빠르게 건축되고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을 제어하기 위해 취해졌다. 맥맨션(McMansion) 또는 몬스터(Monster) 주택으로 불리는 대규모 주택은 근린에 형성된 기존 건축물과 크기, 외관, 형태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몬스터 주택이 주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의 많은 지방정부들이 현재 용도지역제 규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마련 중이다. 통계에 따르면, 1950년대 미국의 평균 주택 크기는 약 90m², 1970년대는 약 140m²였으나, 2000년대는 약 220m²로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oney.cnn.com/2005/08/18/real_estate/monster_home_backlash/index.htm)

(www.realestatejournal.com/buysell/salestrends/20050815-efrati.html?rejcontent=mail)

② 오픈 스페이스 영구보존을 위한 계획기법 (뉴욕)

미국 뉴욕주 외곽의 오픈 스페이스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保存地役權(Conservation Easement)이 인기를 얻고 있다. 개발압력이 많은 도시 외곽에 농지나 목초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보존지역권을 신청하는 건수가 현재 증가 추세에 있다. 보존지역권이란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은 자신이 갖고 개발권만 지방정부나 주정부의 토지재단(Land Trust)에 파는 것을 말한다. 개발권을 판 이후에도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농지나 목초지로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할 수 없다.

(www.nytimes.com/2005/08/14/realestate/14wczo.html?ex=1125633600&en=bfa27b316831cd94&ei=5070)

3 벤츄라 카운티의 충전개발 우선 전략 (캘리포니아주 벤츄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츄라(Ventura) 카운티 2025년 종합계획의 핵심은 충전개발 우선 전략(Infill-First Strategy)이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벤츄라 카운티는 이미 도시화된 지역에 상업 및 공업 용지를 조성하여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주근접을 통해 자동차 의존도를 줄일 계획이다. 벤츄라 카운티는 충전개발 우선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도시지역 안에 있는 공한지와 산업활동으로 오염된 토지인 브라운필드(Brownfield) 현황을 파악하고, 개발가능성 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Ventura County Star, 2005. 8. 9, "Ventura's Infill-First Strategy Seen As Best Choice to Accommodate Growth and Preserve Quality of Life")

4 여성친화적인 거리 디자인 (영국)

여성 건축가와 여성 도시계획가로 구성된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WDS(Women's Design Service)는 영국정부의 지원으로 여성친화적인 거리 디자인을 위한 3개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WDS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과 도시설계를 할 때 여성 입장에서 분석하고 개선안을 낼 예정이다. 런던, 브리스틀, 맨체스터 등 대도시에서 수백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 여성이 도시 안전 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친화적이지 못한 도시설계로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timesonline.co.uk/newspaper/0,,176-1743811_1,00.html)

5 디자인 코드 사용을 통한 주택단지인 공공공간 질 향상 (영국)

영국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는 양질의 도심 개발과 뉴타운 개발을 위해 건물의 형태, 색채, 재료, 외관, 보행자 거리, 공공공간의 디자인 지침서인 디자인 코드를 개발했다. CABE는 이 디자인 코



드를 바탕으로 7개 지역을 개발했으며, 현재 6개 지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디자인 코드 덕분에 도시계획과 디자인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빨라졌을 뿐 아니라 질 높은 건축 환경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Planning, 2005. 8. 19)

6 도시 소음지도(Noise Map) 작성 (영국)

영국 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소음이 주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평가하기 위해 영국 도시의 소음 정도를 나타내는 소음지도(Noise Map) 제작을 처음 시도했다. 기존 도로지도를 기초로 노팅엄(Nottingham), 셰필드(Sheffield), 리버풀(Liverpool), 맨체스터(Manchester)를 포함한 20여개 도시에서 자동차, 철도, 비행기,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Planning, 2005. 8. 19)

도시 교통/사회복지·문화

■ 세계도시동향 ■

7] 도심 도로체계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 (홍콩)

홍콩 도심의 도로체계가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홍콩 교통부는 2000년부터 홍콩 도심의 보행환경 개선과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세 가지 종류의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했다. 풀타임 보행도로(Full-time pedestrian street)는 보행자 전용도로이며 자동차 통행은 제한된다. 파트타임 보행도로(Part-time pedestrian street)는 정해진 시간대에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보행전용으로 바뀐다. 마지막으로 교통 진정 도로(Traffic-calming street)는 보도를 더 넓히고 차도를 좁혀서 차량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보행환경을 개선한 도로이다. 약 5년간의 시행결과 보행환경 개선뿐 아니라 거리의 상업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td.gov.hk/transport_in_hong_kong/pedestrianisation/pedestrianisation/central_)

(www.maisonneuve.org/index.php?&page_id=12&article_id=1751)

8] 방학 중 무료로 점심 제공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가·공원과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방학 중에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市전역 34개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영양가 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미국 농업과가 기금을 지원한 이 프로그램은 2005년 8월 29일부터 시작해 2006년 6월 23일까지 진행되며,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신청자는 개별적으로 가까운 점심제공 지부에 전화를 하면 된다.

(www.lacity.org/rap/press/rappress31431999_09012005.pdf)

9] 방과 후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예술가 참여 기대 (시애틀)

미국 시애틀시는 2006년 ‘청소년 예술(Youth Arts)’ 프로그램에 전문 예술교육이 가능한 예술가, 예술단체, 지역 청소년단체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청소년 예술’은 시애틀의 중·고등학생이 방과 후 예술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시애틀시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전문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예술가가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도한다. 또한 예술과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이나 지역사회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당국은, ‘청소년 예술’이 시애틀 청소년에게 예술적 기회를 줘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예술에 재능 있는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지원자를 위해 지원 안내 관련 워크숍을 마련했으며, 예술가 개인뿐 아니라 예술문화단체, 지역사회 청소년단체 등도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seattle.gov/news/detail.asp?ID=5308&Dept=1)

10] 박물관에서 특별한 꽃 프로그램 진행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윌밍톤(Wilmington)에 있는 Banning Residence 박물관에서는 2005년 9월 10일, ‘남부해안 달리아협회’와 여가·공원과가 합동으로 달리아 특별 강좌를 열었다. 협회 대표인 밥 팝(Bob Papp)은 달리아 재배와 관리에 관한 슬라이드 쇼를 갖고,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협회 회원들은 갤러리와 테라스에 꽃 전시를 하고 화분도 판매했으며, Norris 박물관 숲은 엄선된 선물용품 및 계절상품과 함께 달리아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물건을 진열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박물관에 가는 사람은 회원은 5달러, 비회원은 10달러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www.lacity.org/rap/press/rappress31432002_09012005.pdf)

④ 도심공원 활성화를 위한 예술가 모집 (시애틀)

미국 시애틀시는 2006년 도심공원 재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예술가와 거리공연 예술가, 노점상인을 모집한다. 시는 시설 보수 및 개량,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공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예술가와 노점상인들이 공원에서 벌어지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활력 넘치는 도심공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도심공원 활동 허가를 받은 예술가, 공연자, 노점상인들은 지정된 공원에서 일간, 주간, 월간 등 시간에 따라 작품활동이나 예술공연을 하며 판매도 할 수 있다. 예술가 등은 시에서 나눠준 판매물품 안내서와 로고 등을 커뮤니티 센터, 사무실, 호텔, 병원, 공공도서관 등 시애틀 전역에 배포할 수 있다. 시는 계획된 공연시간 및 활동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시애틀시의 도심공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예술가는 2005년 12월 30일까지 작품 견본을 보내면 된다.

(seattle.gov/news/detail.asp?ID=5366&Dept=14)

④ 라틴계 시민을 위한 최고의 도시로 오스틴시 선정 (오스틴)

미국 오스틴시는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라틴계 시민의 최고 도시로 선정되었다. 'Hispanic Magazine'에 따르면, 오스틴시는 낮은 범죄율, 안정된 주택가격, 유망한 기업환경, 인기 있는 문화적 배경 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오스틴시는 경제분야뿐 아니라 정치활동에 있어서도 30% 이상의 라틴계 시민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spanic Magazine'은 또한, 오스틴시의 다양한 라틴음악 축제와 라틴 음식점 등 오스틴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적 배경을 부각시키면서 히스패닉계 시민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이밖에도 앨버커키, 로스앤젤레스, 산호세, 샌안토니오, 라스베이거스가 라틴계 시민을 위한 우수 도시로 선정되었다.

(ci.austin.tx.us/news/2005/hispanicmag_05.htm)

市재정을 민간 호텔사업에 투자 (볼티모어)

미국 볼티모어市 당국은 민간이 운영하는 호텔에 3억 500만 달러에 이르는 市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市의회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 컨벤션 센터와 연결되어 건설될 예정인 이 호텔에 대한 市의 투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컨벤션 호텔을 건립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市는 이 호텔 건립 추진을 통해 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며, 이 호텔에 대한 투자대가로 호텔 측에 일정금액의 장학기금 마련, 지역주민 고용기회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市의회는 채권을 발행하여 호텔 건립 재정을 마련하고 공사를 설립하여 市가 직접 호텔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www.baltimoresun.com/news/local/politics/bal-te.md.hotel12aug12,1,7016030.story?coll=bal-home-headlines&ctrack=1&cset=true)